

집 때문에 10명 중 8명 퇴직연금 깎았다

지난해 총적립 295조...전년대비 15.5% 늘어
가입 근로자 2.8% ↑ · 도입 사업장 4.0% 증가

지난해 퇴직금을 깎 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은 주택 구입 등 주거비 마련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영끌' (영혼까지 끌어 모으다)로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인데 해당 인원은 30대가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1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294조516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5% 증가했다.

구성비로 보면 확정급여형(DB)이 58.0%, 확정기여형(DC)이 25.6%,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16.0%를 차지했다. 적립액의 83.1%는 원리금보장형으로, 13.6%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였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사(50.5%), 생명보험사(22.2%), 증권사(21.3%), 손해보험사(4.8%), 근로복지공단(1.2%) 순으로 비중이 컸다.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서 적립액뿐 아니라 가입 근로자와 도입 사업장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가입 근로자는 68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고, 가입률은 53.3%로 0.9%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도입 사업장은 4.0% 늘어난 42만5000곳이며, 도입률은 27.1%로 0.1%p 감소했다.

퇴직연금을 빼서 쓴 직장인은 1년

새 급격히 줄었다. 정부가 2020년 4월부터 '장기 요양' 사유에 따른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도 인출 인원은 5만4716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0.9% 감소했다.

인출액은 25.9% 줄어든 1조9403억원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중도 인출 인원의 74.2%를, 인출액의 81.2%를 차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존 '장기 요양' 사유의 경우 진단서만 있으면 중도 인출이 가능했다"며 "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요건이 강화됐고 그러다 보니 인출 자체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중도 인출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원 기준으로는 주택 구입(54.4%), 주거임차(27.2%), 회생 절차(12.9%), 장기 요양(4.2%) 순으로 비중이 컸다.

특히, 요건이 강화된 '장기 요양'

사유인 경우 인출 인원과 인출액이 각각 2280명, 787억원으로 전년 대비 86.1%, 90.8% 급감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만4682명(65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만6942명·6876억원), 50대(7584명·4711억원), 20대(4256명·565억원), 60대 이상(1252명·750억원) 순이었다.

30대는 '주택 구입'을 사유로 4373억원을 중도에 인출했다. 이외에 40대는 4627억원을, 50대는 2950억원을, 60대 이상은 428억원을, 20대는 17억원을 썼다.

통계청 관계자는 "중도 인출 사유 자체가 주택 구입이나 무주택자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장기 요양 등으로 많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과 관련된 금액이 많은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뉴스

전국 아파트값 9년 만에 하락 전환

인천 5.34% 하락률 1위...세종시 4.16% · 대전 3.21% ↓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9년 만에 하락 전환됐다. 아파트값은 지방과 광역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다.

부동산R114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1.72% 하락하면서 9년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2021년 한 해 34.52% 올라 전국에서 상승폭이 제일 컸던 인천이 5.34% 떨어져 가장 많이 하락했다. 인천은 가격 급등과 함께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뒤를 이어 세종시가 4.16% 떨어졌다. 세종시는 2020년 행정수도 이전 등의 이슈로 아파트값(42.81%)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듬해인 2021년 10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1년 넘게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대전은 2019~2021년까지 3년간 두 자릿수 오르내린 가격 부담이 크게 작용하면서 3.21% 내렸다. /뉴스

이어 ▲대구(-3.05%) ▲경기(-1.98%) ▲부산(-1.84%) ▲충남(-1.15%) ▲서울(-1.06%) ▲전남(-0.58%) ▲경북(-0.45%) ▲충북(-0.31%) 순으로 하락했다.

서울은 송파가 6.30%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송파는 최근 3년(2019~2021년) 동안 두 자릿수 상승한 부담이 컸다. 재건축아파트를 비롯해 대단지가 크게 하락했다.

이어 ▲도봉(-4.40%) ▲강동(-3.99%) ▲노원(-2.83%) ▲강북(-2.21%) ▲성북(-1.71%) ▲관악(-1.43%) ▲중구(-1.33%) ▲금천(-1.20%) ▲강서(-1.00%) 등이 하락했다. 2021년 으뜸폭이 컸던 노원, 도봉 등 외곽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전세 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재계약이 늘어난 데다 대출 부담으로 월세선호 현상이 이어졌다. 이에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2.79%를 기록하며 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뉴스

신용진 제8대 한국광기술원장 취임

개원 이래 첫 연임... "초격차 광융합 혁신기술 개발 집중"



신용진 한국 광기술원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2001년 한국 광기술원이 개원한 뒤 처음으로 연임이다. 임기는 3년이다. 신 원장은 19일 제8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신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기술 패권과 기술혁신이 국가 근간이 되는 기술경쟁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초격차 기술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초미세 광반도체, 차세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광융합 혁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광기술원 내부적으로는 기업지원기능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향상하고, 외부적으로는 각종 지원기관에 분산되어있던 다양한 기업지원 인프라를 기업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광융합기술 코디네이팅 강화를 통해 초월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2019년 11월 7대 원장 취임 이후 국내 유일 '광융합기술 전문연구소' 지정과 더불어 광소재부품, 메타버스, 탄소중립, 우주·국방, 미래차 분야 등 5대 전략융합 분야 집중 육성으로 국가전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 원장은 초기 레이저 물리학을 연구한 학자로 의학광(Medical Photonics)의 개념을 국내 최초로 정립했으며 광주제일고와 고려대 물리학과, 미국 뉴욕대학원을 거쳐 1994년부터 조선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광특화연구소장, 한국물리학회 부회장 및 '물리학과 첨단기술' 편집위원장, 한국광학회 부회장 및 감사, 한국레이저가공학회 기술·대의협력 이사를 거쳤다. /권형안 기자



CU, 설 선물세트 판매...1억2천만원 카니발 하이리무진 선물도

CU가 설을 맞아 내달 13일까지 총 14개 카테고리에서 500여종의 설 선물세트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CU는 이번 설에 초고가 상품부터 합리적인 가격에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알뜰 상품까지 폭넓은 가격대로 상품을 준비했다. 선물세트 중 최고가 상품은 1억2000만원짜리 카니발 하이리무진이다. /뉴스

여수광양항만공, 농어촌 ESG실천 인정기관 선정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주관하는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참여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농어촌지역의 ESG경영을 선도하였음을 공인하고, 그 노력을 적극 홍보하고 포상해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제도이다.

심사는 농어촌 지역 친환경 지원활동,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활동, 지원체계 확립 등 농어촌 지역 ESG 경영을 위한 25개 지표 평가로 진행됐으며 19개 공공기관, 4개 민간기업이 선정됐다.

YGPA는 △해양 페플라스틱 수거 및 업사이클링 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농산물 구매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농촌 마을 경로시설 개보수 사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력 사업 뿐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 활발한 농어촌 ESG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성현 사장은 "지방 소멸위기에, 탄소중립 전환 요구 등 농어촌이 직면한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부터 휘발유 리터당 100원 오른다...경유는 변동 없어

유류세 인하 내년 4월까지 연장...내달 1일부터 인상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새해에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휘발유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00원 가까이 오르는 대신 경유 인하 폭은 그대로 유지해 휘발유와 경유 간 가격 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말 예정됐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30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11월12일부터 올해 4월30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 2500원에 육박하자 5~6월에는 30%, 7월부터는 역대 최대인 37%까지 확대 적용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시한이 도래하고, 국제유가 하락세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1500원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안정세에 접어들자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겨울철 난방 및 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자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유종별로 인하 폭 조정에 차등을 뒀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

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경유와 LPG(액화석유가스)부탄은 지금까지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내년 1월1일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615원으로 지금의 516원보다 99원 올라간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인 ℓ당 820원에 비해 205원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보다 100원 가까이 비싸지는 셈이다.

19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542원이다. 이 같은 시세가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1월1일 0시부터는 1640원 안팎으로 오를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 폭을 유지하는 경유(ℓ당 212원), LPG부탄(ℓ당 73원)은 한 동안 큰 가격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

(주)보삼바이오산업, 벤처산업 발전 모범 유공자 수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수상...글로벌기업 도약준비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벤처창업 혁신성장 주역으로 일자리 창출과 산업발전에 공헌한 벤처·창업·투자·지원기관 분야 개인 및 단체에 대한 '2022년 벤처창업 진흥유공 시상식'을 개최했다.

(주)보삼바이오산업이 벤처활성화 분야 벤처기업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주)보삼바이오산업은 당사가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원자수소수 핵산효소의 기초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수소, 효소 관련 제품 등을 제조·생산하는 기업으로 2018년 설립 당시 5명의 직원

으로 시작해 현재 32명의 임직원들이 고객들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글로벌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창업진흥 유공 수상자에 대해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결과, 서류심사, 현장점검, 면접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권형안 기자

예금금리 하향세에 적금으로 관심 ↑

고금리 적금 상품 잇달아 출시...1년 만기 최고 7%도

정기예금 금리가 하향세로 접어들면서 고객들의 관심이 높은 이자를 주는 적금 상품으로 몰리고 있다. 은행들은 고금리 적금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시중의 유동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모습이다.

19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은행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 우대금리는 5% 초반대로 형성돼 있다. 상품별로 ▲BNK부산은행 더(The) 특관 정기예금 5.30%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5.20%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만기 일시지급식) 5.15% ▲Sh수협은행 Sh첫만남우대예금 5.10% ▲광주은행 호랑차차디지텔예금 5.00%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 5.00% 등이 5% 이상의 금리를 제공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고객들이 많이 찾는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모두 4%대로 내려갔다.

은행별로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 4.79%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 4.75% ▲신한은행 슌편한 정기예금 4.70% ▲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 4.65% ▲농협은행 NH플러스화전예금 II 4.34%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대출이자 가파르게 뛰는 것을 우려해 은행권의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하라고 당부하

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에 고객들의 관심은 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정기적금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전북은행의 정기적립식 JB 카드 제테크 적금은 1년 만기 최고 7.00%의 금리를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의 IBK탄소제로적금(자유적립식)도 7.00%이자가 책정됐다. 제주은행의 자유적립식 MZ플랜적금은 6.00%의 금리를 제공한다.

저축은행권에서도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적금 상품에 관심이 모인다.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된 상품을 보면 ▲한국투자 FLEX정기적금 6개월 ▲진주 지니뱅크-정기적금(비대면) 12개월 ▲청주 12개월 정기적금 등이 6.00% 금리를 주고 있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압력으로 예금금리가 하향세로 접어들면서 적금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납입 한도가 낮고 만기가 짧은 고금리 적금 상품을 여러 개 가입하는 고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901조3628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2207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정기예금 잔액은 827조2986억원으로 19조71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9월(약 30조원)과 10월(약 47조원)에 비해 둔화했다.

현대차그룹 '축구마케팅' 힘 실는다

"10조원 광고효과" ...카타르 월드컵 흥행에 '함박웃음'

현대차그룹의 축구 마케팅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공식 후원을 받았던 카타르 월드컵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며, 브랜드 노출을 통해 수십 조원 규모의 광고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된다.

카타르 월드컵이 19일 새벽(현지 시간) 아르헨티나 우승으로 끝난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이번 월드컵 특수를 전 세계에 선포하며, 특히 누렸다는 분석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아디다스, 코카콜라, 카타르항공, 비자카드, 카타르에너지, 완다그룹과 함께 국제축구연맹(FIFA)과 계약을 맺은 후원사들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공식 파트너사'다.

공식 파트너사는 월드컵을 포함해 FIF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경기장 내 광고판(A보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최초 중동 월드컵 타이틀로 주목받던 카타르 월드컵은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우선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48경

기를 찾은 관객은 245만명으로 경기당 평균 5만명을 넘었다. 3·4위전과 결승전을 남긴 가운데 관객은 32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러시아 월드컵 전체 관중 수(330만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예상 누적 시청 인구는 50억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은 FIFA에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총 2억400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2700억 원)를 매년 나눠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상태다. 광고 비용으로만 1년에 225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셈이다.

아직까지 정확한 집계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대차그룹은 이 같은 투자 비용을 훨씬 웃도는 광고 효과를 누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이 16강 진출에 성공했던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현대차그룹은 8조6000억원 광고 효과를 봤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광고 효과도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